나주 남평 교통시설 개선 급하다

중앙선 지워진채 방치 차량교행 위험천만

주차 금지선도 안보여 불법 주·정차 극성

나주시 남평읍 주요 도로에 대한 교통 시설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남평 읍내를 관통하는 남평오거리~남평파출소 구간 도로의 경우 오랫동안 중앙선이 지워진 채 방치돼 있다.

특히 이 도로는 주차금지선(주황색선)마저 없어 불법 주·정차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데도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남평농협 앞 버스 승강장은 차량이 수시로 뒤엉켜 도로가 막히는 등 상습적으로 정체 현상을 빚고 있다.

또 남평파출소~남평축협 구간도로 역시 중앙선이 아예 없어 차량 교행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남평오거리에서 공공도서관 방향 도로의 경우도 주차금지선이 설치돼 있지 않아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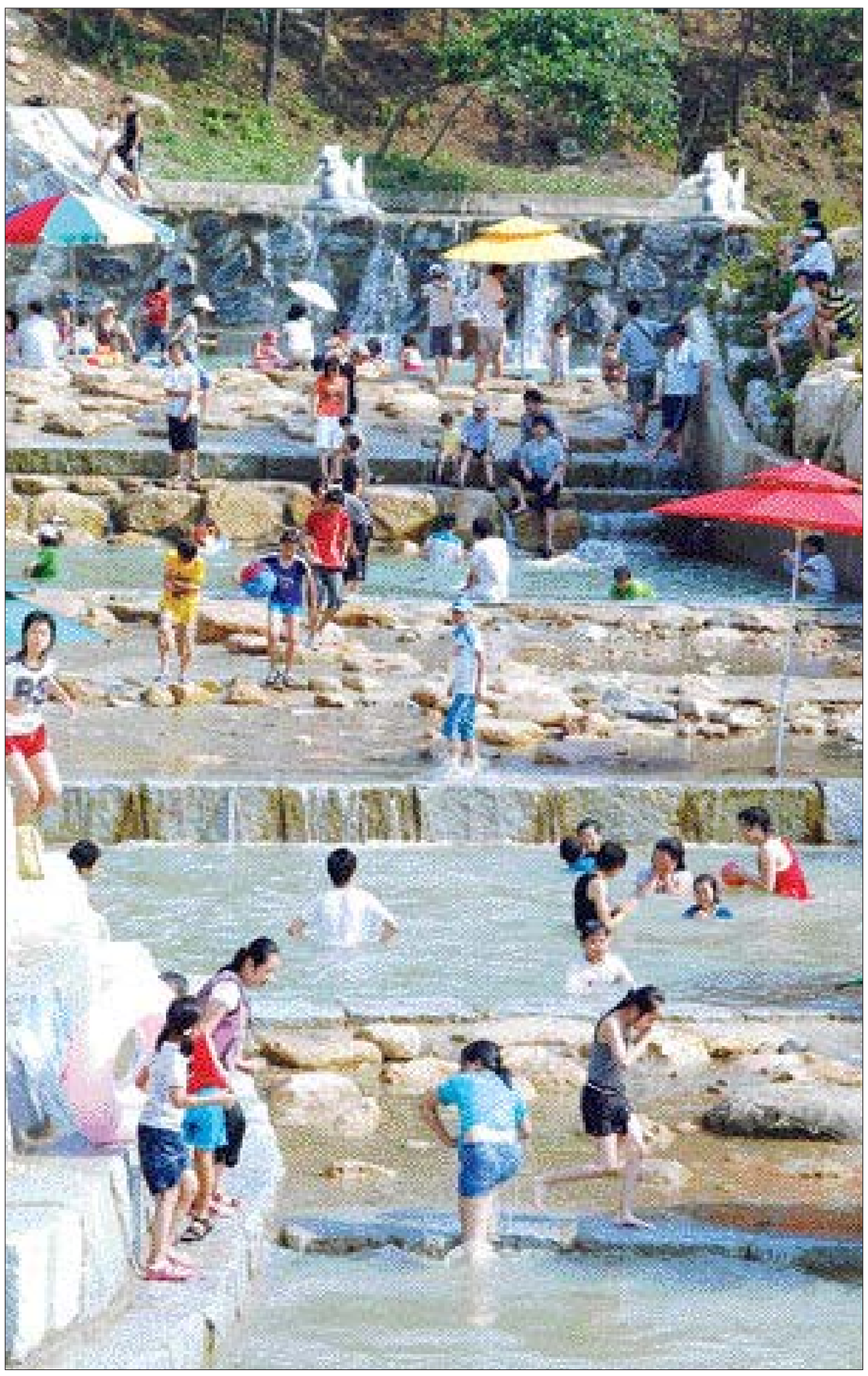
이밖에 남평검문소를 지나 좌회전해 읍내로 진입하는 도로는 비보호로 사고가 잦은 곳이다.

따라서 비보호를 폐쇄하고 광주방향 진입로를 일방통행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주민 김모 (44·나주시 남평읍)씨는 "시내 도로 전체가 차선마저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채 방치돼 있다" 며 "관계당국이 주민들의 안전이나 원활한 교통소통에 전혀 관심을 쏟지 않고 있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이에 대해 나주경찰서 관계자는 "포장 덧씌우기 공사 과정에서 차선이 지워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며 "나주시와 협의해 시설을 보완할 계획이며 일방통행 지정은 교통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나주=최승렬기자 srchoi@



"영광 원전 3, 4호기 안전성에 문제없다"

원자력 안전委 평가 향후 10년 적합 판정

영광원자력발전소 3, 4호기가 향후 10년간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신청한 영광원전 1, 2호기의 출력 4.5% 증강계획도 적합판정을 받았다. 과학기술부는 1일 김우식 부총리 겸 과기부 장관 주재로 제 34차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열어 영광원전 3, 4호기에 대한 주기적 안전성 평가와 영광원전 1, 2호기의 출력증강에 따른 안전성 평가결과를 심의, 이같이 의결했다.

이번에 실시된 영광원전 3, 4호기에 대한 주기적 안전성 평가는 원자력발전소에 대해 10년 단위로 안전성을 평가하는 것으로, 과기부가 2001년부터 도입, 시행하고 있다.

원자력안전기술원은 한수원이 실시한 주기적 안전성 평가가 적합하게 이뤄졌고 평가에 적용된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원자력안전기술원은 또 영광원전 1, 2호기 원자로 출력을 4.5% 증강해도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구조·설비 및 성능이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출력 증강 전에 가압기 및 주증기 안전밸브의 설비를 개선하고 안전등급을 상향 조정하는 등 4개항의 이행사항을 제시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또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3년마다 제출하는 국가보고서의 주요 내용도 심의, 의결했다. 국가보고서는 원자력시설 일반현황과 안전규제 체제, 안전성 증진활동 등 13개 의무사항 이행 현황이 수록돼 있다. /연합뉴스

신안군 10가구 미만 작은섬 48곳

郡, 행정상담위원 위촉 싸고 논란

신안군이 10가구 미만의 작은 섬에 행정 상담위원 위촉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신안군은 관내 14개 읍·면 본도와 출장소가 있는 곳을 제외한 10가구 미만 48개 유인도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군정에 반영한다는 명목으로 행정 상담위원 위촉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군의회는 지난해 말 군이 발의한 '작은 섬 행정상담위원 조례안'을 현실성 결여 등의 이유로 무산시켰다.

군은 행정 상담위원의 군수 위촉안이 부결되자 최근 '군수가 군의회 의장과 협의하여 위촉한다'고 조례안 내용을 개정했으나 이마저 의회에서 보류됐다.

신안군의회 정영도의원은 군정질문을 통해 "10여가구에 불과한 작은 섬에 이장과 반장이 있고 각 읍면에 마을 담당직원도 있는데 수천만원을 들여 행정 상담위원을 위촉하려는 것은 3년 후에 있을 군수선거에 대비해 운동원을 미리 전진 배치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주민 박모(65·압해면)씨는 "인구가 매년 줄어들고 있는 현실에서 오히려 마을 이장자리를 늘리고 담당행정요원이 있는데도 또다시 행정 상담위원을 위촉하려는 배경에 대해 많은 의구심이 일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신안군은 "낙도주민들의 소외감을 해소하고 군민들의 불편사항과 의견을 수렴하는 등 군민들의 군정 참여를 위해 상담위원 위촉을 추진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신안=조완남기자 wncho@

"유명 영화인과 함께 하세요"

여수 시네마센터 '청소년여름캠프' 개최

여수 시네마센터(대표 박철용)가 2·3일 이틀간 공룡화석지로 유명한 화정면 사도에서 영화인과 함께하는 '청소년 여름 시네마 캠프'를 개최한다.

이번 캠프에는 영화 '댄서의 순정'의 박영훈 감독과 '외출'로 대종상과 청룡영화상을 수상한 송민호 작가, '투사부일체'의 제작 프로듀서인 최주석 감독 등이 함께한다.

캠프에 참가한 40여명의 청소년들은 이들과 함께 ▲감독, 작가와의 대화 ▲영화제작과정 맛보기 ▲출연작품 평가토론 등을 벌인다.

또 최근 유네스코 세계자연문화유산 잠정목록으로 등재된 사도 공룡섬 탐사 프로그램 등도 계획돼 있다.

문의(061-643-1055)

/여수=박양규기자 ykpark@

월출산 골짜기 풀장 인기

광객들이 많이 찾는 피서지로 인기를 모으고 있다.

지난달 20일 문을 연 영암 '월출산 작은골' 풀장에 물놀이 인파가 몰리고 있다. 월출산 골짜기 140m를 활용해 조성된 7개의 맥반수 계곡 풀장은 가족 단위 관

광양항 재활용 원자재 40TEU 첫 선적

광양항에서 재활용 원자재가 처음으로 선적된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재활용 원자재 전문 수출입 업체인 ㈜희동은 2일 중국으로 수출될 재활용 원자재 40 TEU(20피트 컨테이너 기준)를 선적한다.

희동은 현재 월 500TEU 규모의 선적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내년부터 월 4천 TEU까지 선적할 계획이다.

또 다른 재활용 원자재 전문 수출입 업체인 ㈜창명이 내년부터 운영에 들어가면 재활용 원자재 물동량은 월 6천 TEU를 웃돌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광양=김춘호기자 chkim@

100억 들인 생태하천 악취 진동

목포 삼향천 졸속공사 의혹

환경단체 "썩은 뻘 제거 안하고 겉 포장 치중"

목포시가 103억원을 들여 생태하천으로 조성한 삼향천에서 심한 악취가 발생해 졸속 공사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목포시는 지난 2003년부터 지난 6월까지 정화시설과 산책로, 휴게시설, 수생식물 식재 등 삼향천 생태하천 조성공사를 마무리했다.

그러나 정작 하천 밑 바닥의 썩은 뻘은 걷어 내지 않은 채 공사를 마쳐 악취가 진동하고 있다.

또 하천 시작과 끝 부분 고저 차이가 70㎝에 불과하고 유입수가 턱없이 부족해 하천 물 흐름이 거의 정지 상태에 놓이면서 오염 물질이 쌓이고 있는 점도 악취 발생의 또 다른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시는 뒤늦게 황토 등의 성분이 첨가된 수질 개선제 4천만 원 어치를 하천에 뿌리는 등 냄새 제거에 나섰으나 별 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또 내년부터 3년간 30억 원을 더 투입해 구간별로 뻘을 준설하고 유입수를 더 늘려 나가기로 해 뒷북 행정이라는 지적을 면키 어렵게 됐다.

환경단체 관계자는 "하천 상부에 있는 정화시설에서 나온 물이 저류조, 습지를 통해 흐를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악취 발생을 없애는 다양한 방법을 건의했지만 시가 묵살했다"면서 "먼저 악취 발생 요인을 제거한 다음에 공사를 해야 하는데도 겉 포장에만 치중했다"고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뻘 준설과 옥암하수처리장 물 1만t이 3년 안에 삼향천으로 유입되면 악취가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목포=이상선기자 sslee@

항공기 '착륙장치 낙하시험동' 기공

항우연, 고흥 간척지구에 내년 완공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1일 고흥군 고흥읍 고소리 고흥만 간척사업 지구에서 '회전익기 착륙장치 낙하시험동' 기공식을 가졌다. 〈사진〉

낙하시험동은 회전익기 및 중소형 항공기의 착륙장치 개발에 필요한 시험평가 시설로 전체면적 571㎡에 하중 60t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 시설이 오는 2008년 하반기 완공되면 항공기 착륙장치 낙하시험평가를 국내에서도 할 수 있게 돼 착륙장치 독자개발에 필요한 기반 인프라를 확보하게 된다.

항우연은 지난해 6월부터 한국형 헬기개발 사업(KHP)의 핵심 구성품 개발사업에 착수했으며 18개 개발 구성품 중 주·보조 착륙장치에 대한 낙하시험평가를 오는 2009년부터 수행할 예정이다.

한편 고흥군은 고흥만 간척지를 국내 항공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경비행장 활주로 건설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고흥=대성수기자 dss@

담양군 보건소 조명순씨 국무총리상

군민 보건 향상 공로

조명순(50·사진) 담양군보건소 건강증진 담당이 1일 국무총리 모범공무원상을 수상했다.

조 담당은 지난해 행정혁신 마일리지 19개 항목평가에서 최우수상 수상과 560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한 주민건강 체조교실 운영 등 군민 보건향상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됐다.

또 어린이 영양교실을 개설하고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방문을 통한 보건사업 내실화와 농촌 주민 건강증진 도모에도 크게 기여했다.

지난 81년 공직에 첫 발을 내디딘 조 담당은 가족보건계장, 방문보건담당, 예방의약담당 등을 지냈다.

조명순 담당은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보건사업과 군민 보건의식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담양=차재화기자 jhwha@

함평 세계나비·곤충엑스포 조직위

내달 12일까지 '온라인 홍보대사' 모집

(재)함평 세계나비·곤충엑스포 조직위원회가 다음달 12일까지 '온라인 홍보대사'를 모집한다.

20명을 모집하는 온라인 홍보대사는 블로거, 미니홈피 운영자, 나비·곤충 관련 카페 및 커뮤니티 운영자 등 나비와 곤충을 사랑하는 네티즌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접수는 2008 함평 세계나비·곤충엑스포 홈페이지(www.hampyeong-expo.org)를 통하거나 직접 방문하면 가능하다.

서류 심사를 통해 선발된 합격자는 엑스포 홈페이지 게시판과 이메일을 통해 개별 통지된다.

선발된 온라인 홍보대사는 나비·곤충 관련 인기사이트 게시판과 커뮤니티에 리플 홍보를 비롯해 엑스포 기간 중 온라인 홍보 리포터 및 모니터링 역할, 동영상을 이용한 엑스포 홍보 영상자료 제작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또 엑스포 기간 중 행사장을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인증카드가 발급되고 주요 행사 초청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문의(061-320-3757)

/함평=박영진기자 pyj4079@